

# 미국과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공급망 지형도

## < Executive Summary >

### ■ 팬데믹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

- 세계경제를 휩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경제의 수출 및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경제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음

### ■ 세계화에 대한 반감,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성,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등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이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성장세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확장이 제한
  - 특히 2020년 이후 팬데믹과 전쟁, 이상기온 등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가 빈번해지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역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 공급망 재편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美·中의 패권 경쟁으로, 중국은 2050년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미국은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규제
-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도 글로벌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미국의 그림: 미국과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중심의 첨단기술 공급망 구축

-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국가의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여 중국의 굴기를 무력화
- ① 세액공제 혜택과 대규모 보조금 등으로 미국 내 생산 기반 재건, ②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공고화, ③ 수출/투자/금융 제재로 중국 견제
- 넷제로(Net-Zero) 정책과 인권 이슈를 내세워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

### ■ 중국의 그림: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신흥국 포섭으로 新공급망 모색

-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회원국들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필수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 기축통화인 美 달러화의 무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
-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에 접근하여 세력을 확대
-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드론, 전기차,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공급망 파워를 강화

■ 자원부국의 위상강화, 일부 국가의 ‘제2의 중국’을 위한 레이스, 과잉투자에 따른 위기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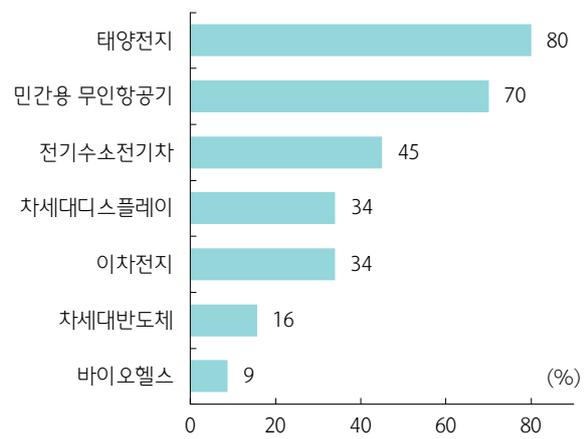
- 노동, 식량, 원자재 등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해 짐에 따라 자원부국(resource-rich country)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
-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은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제한될 수 있는 2050년이 되기 전에 ‘제2의 중국’이 되기 위한 경쟁에 돌입
- 경제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변화하면서 중복투자과 공급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개도국 중 채무불이행이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

표 | IRA 이후 발표된 주요 친환경 프로젝트

Sector	Projects	Investment	Jobs
Battery/Storage	58	35,883,400,000	21,247
Biofuel	1	0	40
Energy Efficiency	1	6,000,000	200
EV	130	76,160,100,000	58,091
Geothermal	1	0	0
Grid, Transmission and Electrification	15	1,660,000,000	1,873
Hydrogen	16	5,142,800,000	3,338
Semiconductor	2	5,375,000,000	1,970
Solar	62	12,195,000,000	21,929
Wind	19	2,952,500,000	2,674

자료: e2.org

그림 | 신성장 산업 중국 수출점유율(2021)



자료: KOTRA

연구위원 김 영 준 kimekono@hanafn.com

Key Words : GVC 재편, 탈중국, 제2의 중국

## I.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헤쳐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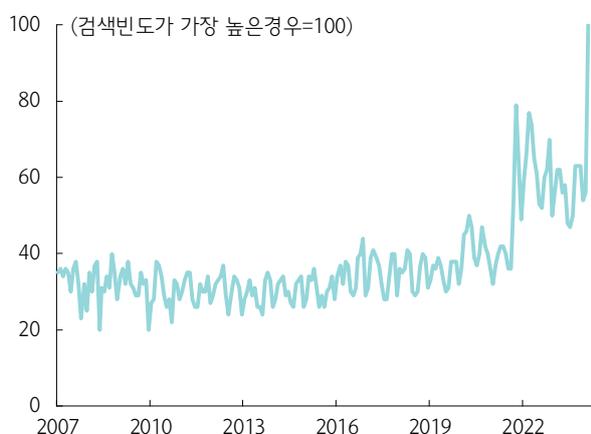
### ■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 부각

- 세계경제를 휩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up>1)</sup>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이 부각되면서 향후 자국(Domestic)이나 지역(Regional) 중심 공급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
- 주요국은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에서,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양측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합종연횡
  - 선진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자국 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신흥국은 중국의 제조업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분투

###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 경제의 수출 및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중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경제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음
  - 관련 불확실성이 높지만,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라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나타나는 이유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이에 따른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그림1 |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검색량



자료: Google Trend

그림2 | 미국의 '탈중국화' 시도에 비판적인 중국 만평



자료: ccg.org.cn

1) 원자재를 구매하고, 이 원자재를 중간재와 최종재로 변환시켜 완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네트워크와 분배 옵션을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적인 범위로 확대한 것

## II.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나타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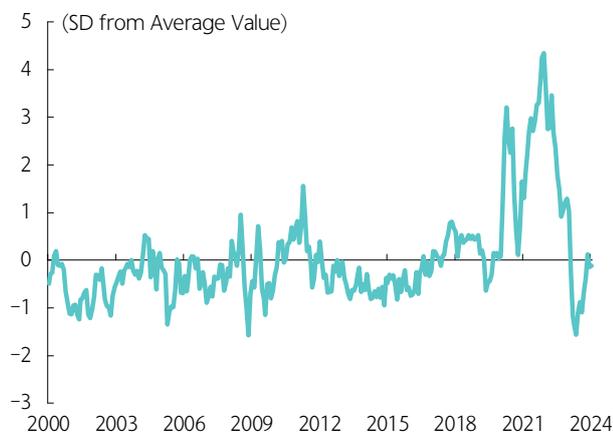
### ■ 선진국 성장세 둔화와 일자리 축소로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 확산

- 글로벌 공급망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몰락과 新자유주의 확산, 중국의 WTO 가입 등을 거치면서 확장을 거듭해 왔음
  - 글로벌 분업화를 통한 인건비 및 원재료 최소화 전략을 통해 전 세계는 골디락스 경제 (고성장·저물가·저금리)의 혜택을 골고루 누려 왔음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성장세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확장이 제한
  - 영국의 BREXIT,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세계화로 혜택을 누려온 선진국의 불만 표출

### ■ 팬데믹 이후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 부각

- 특히 2020년 이후 팬데믹, 전쟁·테러, 이상기온 등 지정·지경학적 리스크가 빈번해지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역환경의 변화 가속화
  -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52.8('00년대)→185.9('10년대)→97.0('20년대)
-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주요 지역의 경제활동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
  - 공급망 충격이 1 표준편차 증가할 경우,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약 1%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3% 상승<sup>2)</sup>

그림3 |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추이



자료: FRB of NY

2) Finck & Tillmann(2022)

표1 | 공급망 위기를 야기한 주요 이벤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무역량 급감
동일본 대지진 (2011년)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급 차질로 자동차·IT 공급망 타격
미국-중국 무역분쟁 (2017년)	자국중심주의 확산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조짐
COVID-19 팬데믹 (2020년)	전세계 생산시설 마비, 핵심 물자 부족으로 글로벌 공급망 타격
수에즈운하 폐쇄 (2021년)	'에버기본호' 좌초로 수에즈운하가 폐쇄되며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원자재 및 식료품 공급 차질로 글로벌 물가 상승 및 경기에 악영향
상하이 봉쇄 (2022년)	중국 최대 경제도시가 전면봉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혼란 가중
홍해 후티 반군 사태 (2023년)	홍해 인근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선사들이 희망봉으로 우회

자료: 삼일PwC경영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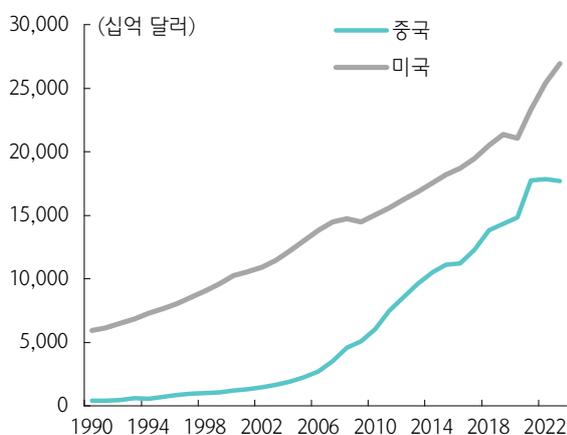
■ 공급망 재편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美·中의 패권 경쟁

- 중국이 205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 로드맵을 발표하고, 미국이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
  - 제이크 설리번 美 국가안보보좌관 “과학과 기술이 21세기 지정학적 판세를 결정”
- 미국은 중국의 하이테크 분야 침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중이며, 중국은 자체 역량 강화와 전략자산화 추진 등 공급망 내재화 전략으로 대응
  - 다만 미국은 중국을 글로벌 교역망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중국 관련 리스크를 관리(de-risking)하는 전략 수립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공급망이 디지털 공급망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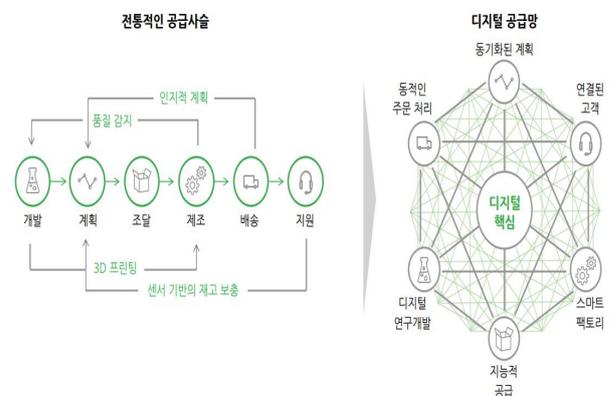
-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도 글로벌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기존 선형적 공급망이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일련의 동적·통합된 공급망으로 발전하면서 지연, 위험, 낭비를 최소화
-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수요·소비자 선호·시장 트렌드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물류 최적화와 운송망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이 가능
  - 맥킨지는 AI로 인한 재고관리 효율화로 재고 보관 비용을 최대 20% 절약하고 재고 부족 상황을 최대 50%까지 감소 가능하다고 분석

그림4 | 미국과 중국의 GDP 규모 비교



자료: IMF WEO

그림5 | 디지털 기술에 따른 공급망 변화



자료: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 III. 미국의 그림: 환경·인권 이슈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우방국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첨단기술 공급망 구축

- 저(低)부가가치 생산은 중국 활용, 고(高)부가가치 생산은 중국 배제
  -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등 국가의 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량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여 중국의 굴기(崛起)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수립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제조역량을 높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내세우며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구성 고려
  - 반면 중국의 거대한 생산공장과 소비시장은 활용하고 기후변화, 국제보건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에서는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는 de-risking 전략을 구사
  
- 미국 내 생산기반 재건, 우방국 위주 공급망 공고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
  - 반도체의 경우, ① 반도체지원법 제정(CHIPS 법, '22.7월)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재건하고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② 한국, 대만, 일본과 협력(CHIP4 결성 제안, '22.3월)하여 반도체 공급망을 견고히 하면서, ③ 수출/투자/금융 제재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제동
  - 반도체 분야별 부가가치 비중을 보면 미국이 39%의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6%에 불과해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는 거의 불가능
    - 미국이 부가가치가 높은 종합 반도체 기업(IDM)과 팹리스(fabless) 방식의 사업 모델인 반면, 중국은 저부가가치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아웃소싱 기업(OSAT)의 사업 방식

표2 | 분야 및 국가별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 및 시장 비중(2020)

분 야	분야별 부가가치	시장비중(%)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유럽	중국	기타
설계 자동화	1.5	96	1	3	0	0	1	0
핵심 지식재산권	0.9	52	0	0	1	43	2	2
웨이퍼	2.5	0	10	56	16	14	4	0
제조 기기	14.9	44	2	29	1	23	1	1
조립, 시험, 포장기기	2.4	23	9	44	3	6	9	7
설계	29.8	47	19	10	6	10	5	3
제조	38.4	33	22	10	19	8	7	1
조립, 시험, 포장	9.6	28	13	7	29	5	14	4
<b>전체 부가가치</b>	<b>100</b>	<b>39</b>	<b>16</b>	<b>14</b>	<b>12</b>	<b>11</b>	<b>6</b>	<b>2</b>

자료: CSET

■ **美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과의 협력을 엄격히 차단**

-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등으로 대규모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
  - IRA 제정 이후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10만명에 육박하는 고용을 창출
- 중국을 ‘우려대상국(Foreign Country of Concern)’으로 지정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차단

■ **환경 및 노동 이슈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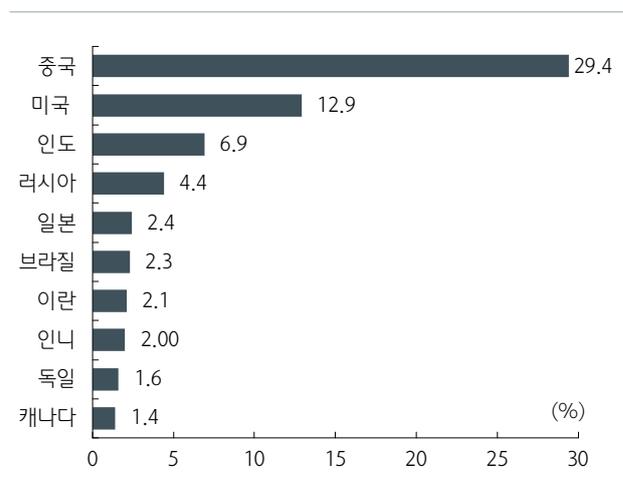
- 미국과 EU는 탄소중립(Net-Zero)을 위해 탄소국경세(Ex: CBAM) 등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도입하여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 및 국가에 페널티 부과
  - 환경이슈를 내세워 중국에서 생산되는 탄소집약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을 규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 내포
- 미국과 EU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을 문제 삼아 이들 노동력이 사용된 기업의 제품을 공급망에서 배제
  - 美 세관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폭스바겐 자동차의 통관을 중지하고 압류(2/18)

표3 | IRA 이후 발표된 주요 친환경 프로젝트

Sector	Projects	Investment	Jobs
Battery/Storage	58	35,883,400,000	21,247
Biofuel	1	0	40
Energy Efficiency	1	6,000,000	200
EV	130	76,160,100,000	58,091
Geothermal	1	0	0
Grid, Transmission and Electrification	15	1,660,000,000	1,873
Hydrogen	16	5,142,800,000	3,338
Semiconductor	2	5,375,000,000	1,970
Solar	62	12,195,000,000	21,929
Wind	19	2,952,500,000	2,674
<b>Total</b>	<b>278</b>	<b>113,799,400,000</b>	<b>97,669</b>

주: 일부 프로젝트는 여러 부문으로 분류되므로 총계와 개별 프로젝트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자료: e2.org

그림6 |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국가



주: 2021년 기준  
 자료: 한국경제인연합회

## IV. 중국의 그림: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신흥국 포섭으로 新공급망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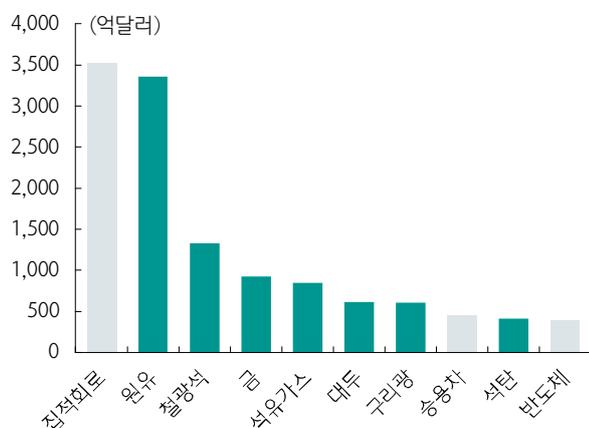
### ■ 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하고 식량과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 중국이 공급 주도권을 쥔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회원국들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필수 원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 기니(철광석), 인도네시아(니켈), 카자흐스탄(텅스텐), 에리트리아(칼륨), 아르헨티나(리튬), 민주콩고(구리·코발트)와 투자 협정 체결
- ‘중국농업 전망보고서(2022~2031)’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10년간 곡물 생산을 최대한 늘려 2031년 식량 자급률을 88.1%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
  - 단백질류(달걀, 견과, 육류 등)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식량 안보의 핵심 지표인 식량 자급률이 지난 20년 사이 100%에서 76%로 하락

###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영향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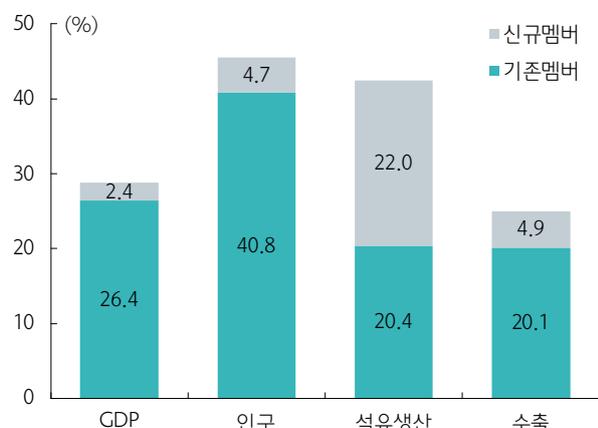
- 미국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으로 중국을 압박함에 따라 중국은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접근하며 대응
- 2023년 8월, BRICS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가입을 승인<sup>3)</sup>
  - BRICS는 GDP 합계 30조 달러, 총인구 36억 명의 거대 집합체로 성장

그림7 | 중국 총수입 중 원자재 비중(2023)



자료: KOTRA

그림8 | BRICS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20)



자료: IMF WEO

3) 아르헨티나는 극우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가입을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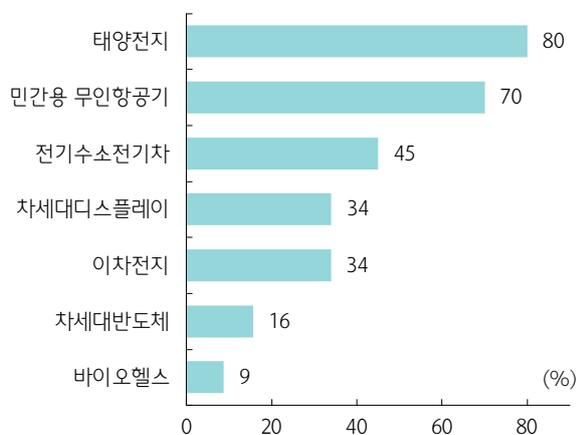
■ 신재생 에너지, 드론, 전기차 등 신성장 산업 육성

- 국가 차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드론, 전기차, 등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국 중심의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려 함
  - 정부 지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망의 숲 단계에서 막대한 점유율 확보
-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7나노 이상 위주의 중저가형 제조 공장의 확충을 추진하고 화합물 및 전력용 반도체의 생산능력 기반을 확보 중
  - '23년 9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는 7나노급 반도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

■ 위안화 국제화로 달러화 수급 약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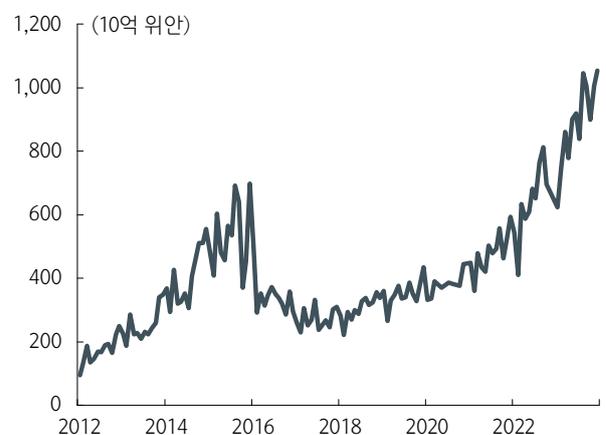
- 기축통화인 美 달러화의 무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결제 위안화 도입하여 국영은행간 위안화 대출 등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에 속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달러화 국제결제 시스템인 SWIFT에서 러시아를 차단함에 따라 권위주의적 국가들의 ‘脫달러화(de-dollarization)’ 동기를 자극
- 중국 금융당국의 자본통제로 글로벌 통화 관점에서의 중국 위안화는 한계가 명확 하지만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것은 가능
  - 실제로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중국과의 무역결제시 위안화 비중을 높였으며, 중국의 대외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러화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

그림9 | 신성장 산업 중국 수출점유율(2021)



자료: KOTRA

그림10 | 중국 상품무역 중 위안화 결제액 추이



자료: CEIC

## V.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시사점

### ■ 인구, 식량, 원자재 등 자원부국의 위상 강화

-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노동, 식량, 원자재 등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해 짐에 따라 자원부국(resource-rich country)의 위상이 높아질 전망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란, 중국, 브라질, 호주,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이 거론
- 자원부국은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를 피하기 위해 제조업, 관광업 등으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국부펀드(SWF)를 조성하여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
  - 무함마드 빈 살만(MBS)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석유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과 민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개발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 ■ 모두가 꿈꾸지만 쉽지 않은 길... ‘제2의 중국’ 되기

-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이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제한될 수 있는 2050년 이 되기 전에 ‘제2의 중국’이 되겠다는 원대한 야망을 갖고 레이스에 돌입
  -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성장이 필요
- 그러나 ‘제2의 중국’이 되기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진 상황
  - 제조업은 개도국이 빠른 속도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나 IT 발달로 기술과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도국의 이점이 줄어들

표4 | 주요 지하자원 매장량 국가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철광석	호주	브라질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니켈	인니	호주	브라질	러시아	필리핀
아연	호주	중국	러시아	페루	멕시코
동	칠레	호주	페루	러시아	멕시코
희토류	중국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인도
원유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	캐나다	이라크

주: 2022년 기준, 원유는 2021년 기준  
자료: KOMIS,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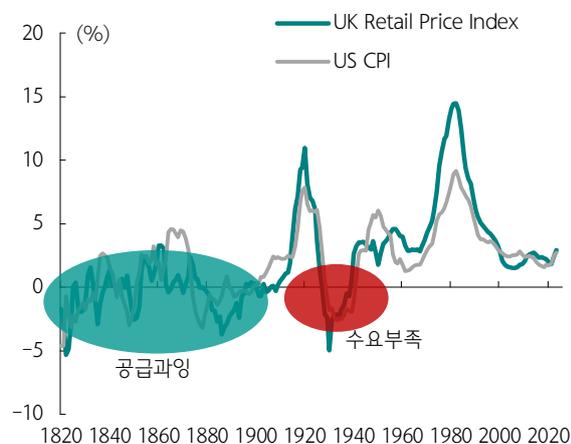
표5 | ‘제2의 중국’ 후보국가 주요지표 비교

	인도	인니	베트남	멕시코	이집트
면적 (천평방km)	3,287	1,905	331	1,964	1,001
인구 (백만명)	1,399	279	110	130	110
GDP규모 (PPP억달러)	131,196	43,934	14,342	32,776	18,094
평균연령 (세)	29.5	31.2	32.7	30.6	24.1
도시화율 (%)	36.4	58.6	39.5	81.6	43.1
제조업비율 (%)	23.0	41.0	33.3	31.9	34.3

주: 2023년 추정  
자료: CIA Factbook, IMF W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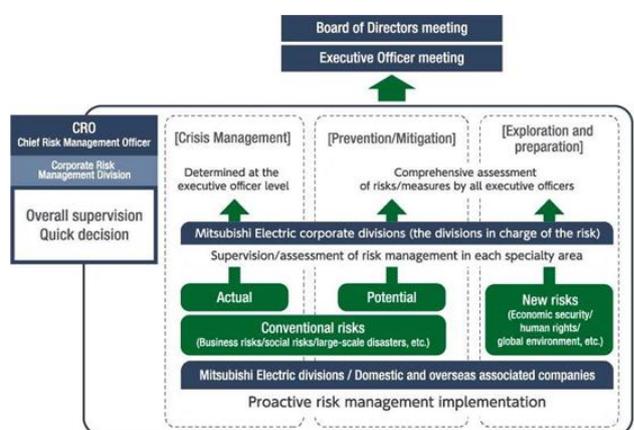
- 공급망 재편은 필연적으로 중복투자와 공급과잉을 야기, 과잉투자가 신흥국 위기를 야기할 수도
  -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경우 ‘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구조가 ‘안보위주·비효율’로 변화하면서 중복투자와 공급과잉이 나타날 전망
    - 단기적으로 자원의 불안정한 수급과 비용 상승 등으로 생산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과잉의 역사가 반복될 소지
  - 특히 '제2의 중국'이 되기 위해 과잉투자를 집행한 개도국 중 재정적 여유가 부족할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산업혁명이나 세계 대공황 등으로 공급과잉·수요부족이 나타났으며, 이를 식민지 개척이나 뉴딜 정책 등의 인위적 수요창출로 극복한 사례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경제안보’ 리스크로 관리할 필요
  - 중국의 굴기를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될 전망이며, 중국도 脫서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가 중요
    - 20년 전부터 중국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온 일본의 위험 관리 사례를 참고할 필요
  - 일본은 2003년 ‘SARS 사태’와 2010년 ‘희토류 수출 중단 사태’ 등을 겪으면서 중국 편중으로 인한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기 시작
    - 중국 시장 의존도를 상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 (2022)’을 통해 반도체 소자 등 11개 품목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관리

그림11 | 미국 및 영국 장기물가 비교



자료: Global Financial Data

그림12 | 미쓰비시전기의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자료: mitsubishielectric.com

## [참고문헌]

- 삼일PwC경영연구원(2023),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져올 변화”
- 중국전문가포럼(2022), “中 식량 수입 규모 역대 최대... 식량 자급률 하락세 지속”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脫중국화 중심의 GVC 재편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디리스킹(de-risking)”
- 하버드비즈니스리뷰(2023), “기술로 회복탄력적인 공급망 구축하기”
- 한국무역협회(2023),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전략과 중국의 대응”
- CSET(2021), “The Semiconductor Supply Chain: Asses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 Dani Rodrik and Joseph E. Sglitz(2024), “A New Growth Strategy for Developing Nations”
- David Finck and Peter Tillmann(2022),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Discussion Paper No. 14/2022*, BOFIT
- McKinsey&Company(2022), “AI-Driven Operations Forecasting in Data-Light Environments”
- The Economist(2023), “How to Get Rich in The 21st Century”
- The Wire China(2023), “The Japan Model”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